

월드컵 단신

토고 감독 조만간 복귀

감기에 걸려 팀 훈련 및 평가전에 불참했던 한국의 독일월드컵축구 본선 조별리그 첫 상대 토고의 오토 피스터 감독이 곧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함베르크 토고 축구대표팀 수석코치는 24일(이하 현지시간) "피스터 감독이 빠르면 25일부터 팀 훈련을 지휘할 예정"이라며 "현재 팀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피스터 감독은 지난 15일부터 팀을 이끌고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소도시 방겐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월드컵을 향한 막판 담금질에 돌입했지만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22일부터 팀 훈련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23일 독일 TSV 아인틀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에른주 선발팀과 평가전에도 불참했다.

프랑스 쿠페 훈련장 이탈

2006 독일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한국의 두번째 상대인 프랑스 축구대표팀이 알프스 고지(高地) 리조트 티누에 차린 베이스캠프 분위기가 이례적이라 어수선하다. '1번 수문장' 파비앵 바르테즈(35·마르세유)의 백업 멤버인 골키퍼 그레고리 쿠페(34·리옹)가 25일(이하 한국시간) 집을 싸들고 훈련장인 티

뉴 리조트를 이탈했다가 1시간30분 만에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목격자들은 쿠페가 가족과 함께 개인소유 차량을 몰고 외부로 나갔다 돌아왔다고 전했다.

쿠페가 이탈한 반면 바르테즈는 훈련 계획에 따라 그랑드-모트 봉우리를 등정하던 도중 갑자기 장딴지 통증을 느껴 팀 주치의의 불렀고 도중에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갔다.

다른 선수들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산악트레킹을 무사히 소화했다. 바르테즈는 이날 도메네코 감독의 훈련 계획에 따라 그랑드-모트 봉우리를 등정하던 도중 갑자기 장딴지 통증을 느껴 팀 주치의의 불렀고 도중에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갔다. 다른 선수들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산악트레킹을 무사히 소화했다.

BBC 한국축구 꼬집어

영국 공영방송 BBC 인터넷판(news.bbc.co.uk)은 25일 '한국의 어려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엔 열광하는 한국 축구의 현실을 꼬집었다. BBC는 "한국 축구팬들이 언제나 그렇듯 열정을 가지고 2006 독일월드컵 축구 응원 준비에 나섰다"며 "한국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려 한다"고 보도했다. BBC는 그러나 "한국 축구는 민족주의와 혼란해 있다"며 "여전히 자국의 프로축구는 발전하지 못하고 관중도 없다. 한국에서 축구는 오직 대표팀으로 시작해서 대표팀으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실력과 실수는 종이 한장 차이?

윤곽 드러난 불명예 기록 주인공들 대부분 스타급 선수

한기주, 몸 맞는 공 6개 선두
다승 1위 문동환 볼넷도 1위
거포 마이로우, 46개 삼진왕
김한수·안경현 병살타 최다

'스타급 선수는 실수 부문도 스타(?)' 올해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가 중반을 향해 질주하면서 불명예 기록의 주인공들도 그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특이한 점은 8개 구단의 최상급 선수들이 삼진, 병살타, 실책과 투수의 피홈런, 볼넷, 몸 맞는 공, 폭투 부문 등 좋지 않은 기록에서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25일 현재 마운드에서는 역대 신인 최고 계약금(10억원)을 받은 '황금팔' 한기주(KIA)가 6개의 몸 맞는 공을 남발해 타자들에게 가장 위험(?)적인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한기주는 시즌 7번째로 선발 등판했던 지난 18일 광주 현대전에서 2회 두번째 타자로 나선 이택근의 몸을 공략(?)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마운드를 내려오기도 했다. 지난 2003년 탈삼진왕 이승호를 비롯해 심수창(이상 LG), 정민철(한화), 제이미 브라운(삼성)은 올 시즌 7개의 홈런을 헌납하며 '홈런 공장장'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함께 시즌 8승으로 다승 1위를 질주 중인 문동환과

최고의 닥터K 명성을 얻은 무서운 신인 유현진(이상 한화)은 많은 이닝수를 소화하며 볼넷 24개와 20개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KIA의 '토종 에이스' 김진우도 볼넷 23개로 문동환의 뒤를 이었다. 또 다니엘 리오스(두산)는 가장 많은 4개의 폭투를 저질렀고 통산 다승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불혹의 송진우(한화)는 4개의 몸에 맞는 공과 3개의 폭투를 기록

하며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 타격에서는 초반 홈런 레이스를 주도했던 용병 거포 브라이언 마이로우(롯데)가 삼진왕을 차지했다. 홈런 터비 1위 그룹(7개)보다 한 개 적은 6개의 홈런을 때린 마이로우는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중 가장 많은 46개의 삼진을 당해 이 부문 1위에 올라섰다. 이어 홈런 공동 1위인 켈빈 피커링(SK)과 도루 1위를 달리는 박용택(LG)도 각각 37개와 35개의 삼진아웃을 당했다. 삼성의 주전 1루수 김한수와 타율 0.277을 기록 중인 안경현(두산)은 나란히 7개의 병살타를 날려 공격의 흐름을 끊는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수비력을 가늠하는 실책 부문에서는 현대의 핫코너를 지키는 정성훈과 SK 유격수 이대수, LG 2루수 박경수가 똑같이 6개를 남발, 최고 '구멍'의 오명을 썼다. 이밖에 3차례나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던 박종호(삼성)도 30세를 넘은 나이 탓에 몰놀림이 둔해져 5개의 실책으로 명(名)2루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대 농구단·나주대 야구단 대학 여자 스포츠팀 잇단 창단

여자대학 스포츠의 불모지였던 광주·전남지역에 농구·야구단이 나란히 창단됐다. 광주대학교는 25일 오전 대학내 호심관에서 대학농구연맹, 지역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 농구단 창단식을 가졌다. 광주지역 첫 대학 여자 농구단이 이 팀은 레저스포츠학부 김삼천 교수가 감독을 맡고 제일은행 출신 국선경(34) 트레이너 겸 선수를 비롯, 총 10명의 신입생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28일 광주 구룡체육관에서 연예인 농구단 '더 홀'과 창단 경기를 가지며 다음달 강원도 원주에서 열리는 대학연맹전에 첫 출전한다. 목표는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광주시는 창단 지원금 3천여만원을

냈으며 여자 프로농구 광주 신세계계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 국내 첫 대학 여자야구단인 나주대 야구단이 이날 오후 대학 강당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이 팀은 지난해 11월 선수 모집과 훈련에 들어가 창단식을 갖기도 전인 지난 3월 제1회 춘계 여자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에서 결성된 여자 야구 동호회 '스윙'팀의 이경훈(42) 감독과 스윙 출신 선수를 비롯,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모인 선수 13명으로 구성됐다. 이 감독은 "다음달 여자야구 협회 장기 대회에서 우승이 목표"라며 "지역 유망주 발굴과 기존 선수 육성을 통해 한국 여자야구 발전을 이끄는 명문팀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자 멀리뛰기 한국신 25일 충남 공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부 멀리뛰기 결승 1차 시기에서 6m53을 뛰어 한국기록을 세운 김수연씨. /연필뉴스

광주 신세계 28일 홈 개막전

국민은행 맞아 2승 노려

여자프로농구 광주 신세계가 오는 28일 여류리그 홈 개막전을 갖는다. 광주 신세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광주 구룡체육관에서 열리는 천안 국민은행과의 대결에서 시즌 2승을 노린다. 지난 겨울리그를 최하위로 마감한 신세계는 24일 열린 여류리그 첫 경기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강호' 춘천 우리은행을 69-61로 제압하며 기분좋은 출발을 보였다. 정식 감독 없이 정인교 감독 대행으로 시즌을 맞이한 신세계는 지난 겨울리그에서 4승 16패로 꼴배에 그친데다 전년도 여류리그에서도 3승 17패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타이틀 스폰서를 맡는 이번 여류리그는 시작부터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시즌 첫 경기를 마친 상태이지만 신인 김정은에게 특점지원이 집중됐던 지난 리그와는 달리 '노장' 양정옥과 양희희, 미셀 캄벨 등 선수 전원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득점을 올리는 등 인상적인 팀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번 홈 개막전도 '특급투수' 김정은을 주축으로 한 슈팅가드 양정옥 등의 고른 활약으로 추가승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개막전에 앞서 연예인 농구단 '더 홀(The Hole)'의 초창경기도 열렸다. 지난 4월 신세계와 자매결연을 한 '더 홀'은 한기범 전 국가대표 출신 센터가 감독을 맡고 있으며 개그맨 임혁필, 이혁재, 박성호, 윤성호, 아나운서 김성주, 모델 백종원 등이 속해있다. '더 홀'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대 농구장과 시범 경기를 갖고 신세계의 홈 개막전을 축하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6일(금)
▲ 베이저리그(팬파베이-보스턴)(07:55·Xports)
▲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중학야구대회 결승전(14:00·KBS SKY SPORTS)
▲ 프로야구(두산-삼성)(18:00·KBS SKY SPORTS), (SK-KIA)(18:30·MBC ESPN)
▲ 월드컵 국가대표팀 평가전(한국-보스니아)(19:20·MBC)
27일(토)
▲ PGA투어 페덱스 세인트 루드 클래식 2(R05:00·SBS스포츠)

엘지공인중개사
T.019-616-2353
011-601-8230
화순 도곡온천 단지내 최고 성업 중인 무인텔 (최신시설, 복층구조) *일 매출 250~300만 보장 롯데백화점부근 상업용지 *보1역/전/월380만 총장로 4기 5층 상가 *3층상가 및 주차장 *보1역/전/월160만 *공지가가 760만 썬송동 동림지구와 버들마을 사이 *4기 20M도로 접(광사중) *140평 *390만 썬송동 광천교회 부근 *아파트단지 최치지 (8M 계획도로 접) *530평 *170만 양동 상업지역 고급주택 *신아중 대 60평 건 61평 *매매가 2억5천 화정동 신동아와 대주 사이 *대1233평 단층상가 *매 8억2천만 양동상장과 서부경찰서 사이 내지 *라이아네리점, 춘주거, 35M도로접 *대 164평 도산동 파랑새예식장 건너편 *20M 도로면 *270평 *220만 화순 영평리 전원주택지 *대 333평 *12만 5층 상가건물 *광명로와 대주대 1180평 건평470평 전원주택지 *화순 남면 주안리 주민들 보이는 전원주택지 *대지 1180평 *10만

유성공인중개사
☎(대)352-4545, 364-4545 (영성동 송원전문사(사)리)
광천동개발지역
주택상기등 물건다수보유
1010-4610-5631
모텔급매
객실 42개 최신시설 월매출 5천만원 용자 12억 매 25억 016-605-7000

LC타워(주)
☎(대)872-8004, 810-7154-6866 (원산지)
첨단지구내 최상의 위치 LC타워를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각층분할가능▶
●3층 212평 88평
가능업종:신경정형외과, 안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각종 학원등
●4층 300평 30평 47평
가능업종:어린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사무실등
●5층 222평 114평
가능업종:스카이라운지, 호프, 당구장등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1-638-2656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구합니다 ▶
●광주시내 토지(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음) 구함
●기도원 부지: 정성,담양,화순 2만평이상
가격은 셋가
●정성 전원면 도로에 접한 생산녹지-현금2억
●병원 신축부지: 면적 가격은 물건 검토시 결정
▶ 팝니다 ▶
●센타부지
광산구 유산동 대지 117평 평당220만원 20m 도로면
●상가부지
양산동 구획정리지구 아파트정문앞 161평 평당450만원
●복구 용두동
40m 도로 계획선에 접 770평 평당55만원
●광산구 삼도동
1,900평 2차선 도로에 접 평당 20만원
●지하철 시청역부근
마북동 574평 평당400만원 40m 도로계획선에 저층
●컨벤션센터 부근 토지
마북동 화해단지 908평 상담후 결정

21세기부동산개발(주)
호남대표부동산! ☎(대) 525-0021, 전철상담 011-612-3421
AA급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광안로4기1주 유상복합 건물5층 대지7기평 임대용건물 화사시옥 사무실용도적합 동원지구 개발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음지역 매매가 5억 3천만원(가정상 긴급매매)
2. 농성동 삼공회소스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건평가 18억 건립매매가 12억 임대 철니가는 건물임.
3. 화산동 순환도로변 원노리마을입구 대지50평 3층건물 건평가2억 건립매매가 4억5천만 건물리모델링 완료 시 임대수익노장
병원·학원·상가건물 신축부지매각
1. 화정동 시가지 주변지역 도로변 코너부지 320평 긴급매매가 평당 6000원
2. 복구 용두동 도로변 내지 3차 및 132평 평당 3500원
3. 춘주거리 유상복합아파트 신축 부지 1000평 광주대입구 남구 진월동 금호아파트와 평당 3000원
성업중인 골목연습장 급매
1. 광산구 칠단지구 지역녹지 2200평 연습장 7층건물 대지300평 평당 35억/최저가 15억
2. 화정동 터미널앞면 현재 전래역시점도 운영중인 7층건물 대지300평 평당가 35억/최저가 15억
3. 화남공단 공장용지 6000평 현재 2층공장 건물있음. 건평가 9억/최저가 5억
긴급 부동산 물건매매
1. 용평동 구룡 아파트부지 1000평 대형 미분양신축빌딩예정 평당 7배만
2. 광산구 유산동 김원삼거리부근 1000평 도로면 평당 1000만원
3. 복구 지역 용두동 용두동 1000평 및 전 산지 1000평 평당 매매가 40만원 그린벨트 해제된 용두동 주거지역 1,000평 매매가 평당 100만원
4. 화산 도곡 온천관광단지 건너편 원노리 원아 5500평 매매가 평당 1500만원 펜션 대형가게식당겸업 토지
5. 정성로가 내리다 보이는 입야 20,000평 매매가 평당 1265천원. 원안한 경사. 장선호 국민관광단지내 현금부지매각
6. 광주대입구 도로변내지. 광주호가 내리다 보이는 황성적인 입지를 갖춘 토지 500평. 매매가 평당 62만원. 전원주택·카페·가게식당·펜션·전시장대형시설등에 적합한 토지
7. 복구 용두동 도로변 내지. 생산녹지 1100평 신축도로면 평당 3000원. 대역면사무소앞. 원안한 경사에 토질과 주변환경이 수려한 지역인. 복합물류센터. 공장신축부지. 가게식당. 카페·미니골프장·펜션·전원주택부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임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1-1140, 210-1140-2222 (광주연계 신봉동, 대인동 소재사(사)리)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팔리려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편과 얻으신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